

산학협력 범위, 예술까지 확대

군산대 '김관태-김정숙 기획전'
31일까지 교내 산학협력관 2층서

김관태 아트랙 대표, 노조활동 하며
올바른 노사문화 확립 기여

김정숙 군산대 미술학과 교수
독특한 서정미 가진 작품 내놓아



- 김관태 작 '화이부동'
- 김관태 작 '비렘'
- 김정숙 작 '빌리드는 흐르고'
- 김정숙 작 '행복이어라'

김관태 대표는 일본 오사카 갤러리, 러시아 타슈켄트 스페이스, 인사동 경인미술관 개인전 등 개인전을 수차례 열었고, 한중일 아르헨티



나 국제교류전, 한국미협회원전 등 국내외 그룹전에도 여러 차례 참여했다. 제 1회 한류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창조문화예술 대상, 러시아 월드컵기념공모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한편 김정숙 교수는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등에서 30여 차례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전라북도 미술대전 우수상 및 특선, 한국미술협회 미술인상, 오늘의 미술가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아동미술 치료의 이론과 실제', '아동미술교육의 이론과 실제'가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대학교와 군산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이 3월 31일까지 교내 산학협력관 2층에서 '김관태-김정숙 산학협력 기획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이공계열 산학협력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분야 등 비공계열 산학협력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왔던 군산대학교가 산학협력의 범위를 예술분야까지 확대해 산학협력의 지평을 넓히고자 개최되었다.

초청작가는 군산대학교 미술학과 김정숙 교수와 (주)아트랙 김관태 대표이사이다.

김관태 대표이사는 기자자동차 노조위원장을 역임하며 올바른 노사문화 확립에, 김정숙 교수는 독특한 서정미를 가진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지역문화 성장에 기여해왔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예술을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산학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예고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정숙 교수는 '참 좋은 날', '인생의 향기', '빌리드는 흐르고', '동백꽃 필 무렵', '삶의 열매' 등을, 김관태 대표는 '화이부동', '일월', '화해', '비렘' 등을 출품했다.

영화 '기생충' 각본집, 출판계 휩쓸다

교보문고 차트 베스트셀러 종합 1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각본집과 스토리보드북이 출판계를 휩쓸었다.

교보문고 지난달 19~25일 차트에서 '기생충 각본집&스토리보드북 세트' (전2권)는 베스트셀러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김현정 교보문고 브랜드관리팀 베스트셀러 담당은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한 이후 감독이 세세하게 그린 스토리보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도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품귀현상을 빚었고, 다시 원활한 공급이 되기까지 2주 가량이 걸렸다. 그 동안 손꼽아 기다린 독자들에게 전달되면서 단숨에 1위 자리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출간된 이 책은 봉준호 감독이 직접 쓴 각본과 스토리보드, 봉 감독의 창작 과정과 영화세계를 묻는 인터뷰, 미공개 장면 등이 담겼다. 여성 독자(51.3%)와 남성 독자



(48.7%)의 지지를 고루 받았다. 40대 여성 독자의 비중이 16.6%로 가장 높다. 이어 30대 여성(15.7%), 40대 남성(14.7%), 30대 남성(14.1%), 50대 남성(9.2%), 20대 여성(8.6%) 순이다. /뉴시스

정읍시, 코로나 확산 방지

시립박물관·미술관 휴관 결정

상황 안정화되면 홈페이지 통해 공고

정읍시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정읍시립박물관과 정읍시립미술관을 임시 휴관한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전시시설은 전 연령이 이용하고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이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상황이 안정 될 때까지 잠정 휴관을 결정했다.

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관은 휴관 전부터 시설 방역 소독을 진행했으며 휴관 후에도 추가 방역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상황이 안정화되면 박물관과 미술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고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시립박물관(063-539-6792)과 시립미술관(063-539-64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역사적 유물, 시민 품으로

정읍시립박물관, 돌도끼·촉음기 등 158점 올 첫 유물 기증받아

정읍시립박물관에 유물 기증·기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새해 첫 유물이 기증됐다.

박물관에 따르면 (사)정읍역사문화연구소 김재영 이사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돌도끼와 촉음기, 이층농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 158점을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된 자료는 청동기시대 돌도끼와 돌칼부터 근현대 자료인 전주 오목대 고종 친필 비각 탑본, 촉음기, 벽시계, 이층농, 미륵불교와 결혼 복식 자료, 서울 올림픽 자료 등이다.

김 이사장은 "유물은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들로 박물관 전시와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보고 체험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기증 이유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에도 조선시대 당백전부터 근대까지의 화폐 자료와 고서, 음반, 탑본 자료 등 총 304점의 유물을 기증한 바 있다. 정읍시립박물관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귀중



한 문화재를 기증한 기증자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감사패를 증정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소중한 유물을 기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증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를 거쳐 전시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립박물관은 문화재 기증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증받은 유물을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 종교 집회 자제해달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종교계 협조 요청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의 집단 감염이 가시화되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24일 감염증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협조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집행사와 같이 타인과 국민 일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집단행사나 행동을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불교계와 천주교계가 당분간 모든 법회와 미사를 중단하고, 개신교의 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 등을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했다.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종교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시스

천주교는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교구의 모든 미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불교계도 예정된 법회를 줄줄이 취소했다.

하지만 개신교 교회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강남 소망교회, 은누리 교회 등 대형 교회는 주말 예배를 취소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초대형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도 3월1일과 8일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다. 반면 일부 대형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예배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의 중대한 교회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이야말로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종교계의 신중한 판단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종교시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인 만큼 더욱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염 방지와 치료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에서 감염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종교 지도자, 교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간곡히 바란다.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당분간 종교 집회를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고 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